

True Peace

天國 10年
天曆 08
2022년 양력 9월



天國 10年
天曆 08
2022년 양력 9월



하늘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윤영호 세계본부장



오늘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해방과 인류구원,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세계의 실현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의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리고, 참아버님께서 인류에게 남기신 ‘하늘 대한 효정’을 상속받아 하늘부모님께서 태초에 이상하셨던 ‘하늘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생동안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하신 채 등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불철주야 일구월심, 사생결단 전력투구의 자세로 쉬 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녀들을 찾고 품으셨던 참아버님의 노정은 그야말로 폭풍우 치는 거센 바다를 향해하는 항해사처럼 오직 하늘부모님의 소원과 인류의 염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참사랑의 희생적 삶의 전형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참아버님께서 흘리신 피는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참아버님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세상의 가장 낮고 구석진 곳을 몸소 찾아가신 아버님, 황무지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베어 학교를 짓고, 고기를 잡아,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셨던 아버님. 모기에 온몸을 뜯기며 밤새 고기를 잡아도 행복하셨고, 황토 속에 정강이가 푹푹 빠져도 외로운 이웃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걸 보는 게 즐거우셨던 아버님. 뜨거운 남미의 태양을 친구 벗 삼아 새소망을 꿈꾸며 농장을 일구셨던 새까맣게 그을린 당신의 얼굴은 성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평화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상을 바꾸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셨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를 시도하셨던 아버님, 사지를 생지로 생지를 신지로 만드시기 위해 북한 땅에 찾아가시어 김일성 주석을 형님으로 만드셨던 당신은 진정의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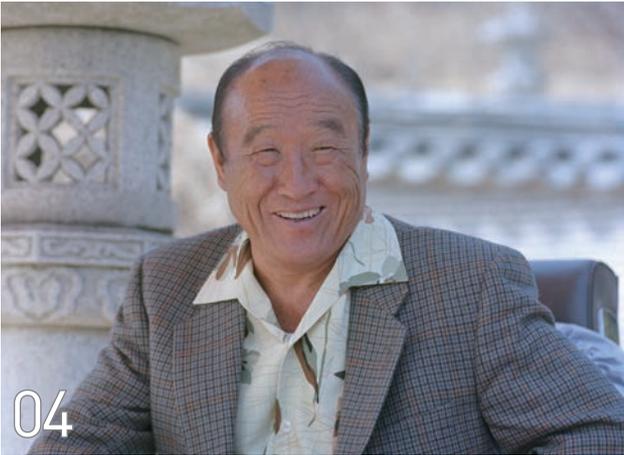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에 가서 청교도 정신을 일깨우는 소방수 노릇을 하며 세계의 분쟁을 막는 일에 골몰하셨고, 이슬람교도와 유대인의 화합을 위해 테러가 난무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인들 수천 명을 한자리에 모아 화해의 광장을 마련하고 평화행진을 벌이신 당신은 평화의 스승이었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시는 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갔지만, 당신은 당신을 위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으시고, 헤진 벨트를 줄라매시고, 하늘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사신 당신.

“조국이며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아주!” 참아버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기도가 참어머님에 의해 지상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단순히 지상의 삶을 추모하는 추모의 날을 넘어, 10수의 수리적 의미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참아버님의 천성 입성 안착 완성의 해인 성화 10주년, 우리는 참아버님께서 그렇게 염원하셨던 하늘부모님의 조국광복, 신통일한국 안착과 신통일세계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해, 2027년 제60회 하늘부모님의 날을 위해 60개월 마지막 섭리노정의 승리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를 향해 다함께 전진합시다. ㄸ

CONTENTS



권두언

- 02 하늘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윤영호 세계본부장

특집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 08 천일국 경배 기념식
- 10 성화축제 기념식
- 14 성화축제 기념 특별오찬
- 16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향구적 평화세계 콘퍼런스
- 17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개회식
- 20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분과세션:
워싱턴 타임즈 창간 40주년 기념식
- 21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특별세션
- 23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
- 26 세계청년리더스 콘퍼런스
- 28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총회

참부모님 말씀

- 04 조국광복은 하나님의 소망
천성경 제12편 제1장 1절
- 06 참부모 현현과
하늘 섭리 추수의 때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총회
- 13 참부모님 당부의 말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식
- 40 하늘부모님께
기쁨·감사의 송영을 드리자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제10회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 50 승리의 약속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축승회

- 29 대륙별 인터넷서널 리더십 콘퍼런스
- 31 2022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IAYSP)
세계총회
- 34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신한국 특별대륙 중심식구 특별집회
- 36 효정증거 부흥마당
- 38 제10회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 42 PEACE ROAD 2022
베를린 대회
- 44 효정 스타 페스티벌
- 45 효정 천보특별대역사
- 46 참부모님 생애업적 전시회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참부모'
- 47 천일국 지도자 총회
- 49 성화축제 축승회



조국광복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참부모와 참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참부모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자기와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참부모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자녀가 있는 곳, 사랑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이 있는 곳이 조국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조국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주체로 하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는 대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사위기대의 본향지입니다. 그곳이 이상적인 조국입니다. 어째서 이상적인 조국입니까? 참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과 참자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이 돼 확대된 세계가 이상세계입니다. 사위기대에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조국은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입니다. 종지조상의 나라입니다. 그 종지조상으로부터 사랑해 내려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불변하니까 그 나라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나라를 중심 삼고 조국이라고 주장한 모든 사람들의 전통적인 배후를 볼 때, 이런 부모님이 사랑하는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늘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탄세계에 파송받은 밀사입니다. 개개인에 있어서 크고 작고, 넓고 좁고,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생활 자체는 밀사의 생활



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생사의 위협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생명 문제가 좌우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을 찾겠다는 관념이 그 환경보다 몇 백 배 강하지 않고서는 밀사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조국의 원한을 풀었을 때에 온 만민이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건하여 조국광복의 한 날을 맞는 그대에 자기 공로가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입장을 무시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고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광복을 위한 소망이 현실의 소망보다 천배 만배 강한 마음이 되어야

만, 오늘의 생명을 바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밀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조국광복을 위해 삼팔선을 타파하고 만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참참사를 딛고 새로운 문화를 창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약한 손을 서로로 맞잡고 약한 몸을 움직여 하늘을 향하여 쌍수를 들어 맹세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자중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를 사랑해야 되겠고 세계를 사랑해야 되겠기 때문에 환경을 개척해야 됩니다. **ㄸ**

본 말씀은 천성경 제12편 제1장 1절에서 발췌된 말씀입니다.



참부모 현현과 하늘 섭리 추수의 때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총회
천일국 10년 천력 7월 16일 (2022. 8. 13) | 천원궁 천승교회 대성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성직자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복귀 섭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은 이들에게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인류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창조 이상의 꿈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탕감복귀 구원섭리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전쟁과 갈

등, 질병으로 오늘날까지 점철되어 내려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성직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 종주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타락한 세계를 벗어나 본래의 하늘이 꿈꾸셨던 그 세계로 가는 길을 고생하며 섭리해 나왔고, 오늘날에 크게 4대 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①



②



③

참부모 현현과 하늘 섭리 추수의 때

나는 ‘이 모든 종교는 종점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 시조의 그 책임은 실제적으로 완성한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하늘이 다시 섭리하실 수 있는 참부모가 탄생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1960년에 참부모가 현현하여 섭리 역사를 펼쳐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가정 운동, 타락한 인류를 다시 낳아 주는 중생·부활의 섭리가 축복의 은사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넓혀 나와서, 참아버님 성화 후 10년간에 세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었습니다.

인류역사 6천년 만에 하늘이 참고 기다려 나오신 6천년 탕감복귀섭리역사를

마감하고 지상에 창조주 하나님,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내년 5월에 봉헌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하늘 앞에 송구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농부의 예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밭에 가라지가 많이 나왔으니 뽑으오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이 바로 추수 때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알곡으로써 영영 세세토록 번치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와 인류가 지상에서 평화로운 인류 한 가족, 지상천국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책임 다하는 참가정·

- 1 말씀 주시는 참부모님
- 2 꽃다발 봉정 및 기념촬영
- 3 선언문 채택

축복가정·천보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6천년간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여러분이 본래 창조 당시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일을 벌여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근심·걱정이 없는 희망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념하는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천력 7월 17일 오전 7시,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가정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기관기업체장, 전국목회자, 종친 및 원로식구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HJ가든홀에서 거행됐다.

조성태 세계본부 총무처장의 진행된 기념 경배식은 문효진님 가정과 문흥진님 가정의 대표 문연아님과 문훈숙님께 서 입장하시어 성초 점화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여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보고기도에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천주에 아버님의 숨결과 흘리셨던 눈물과 땀이 적셔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발걸음마다 우리는 아버님의 사랑과 심정을 공기처럼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아주!’의 말씀을 기도처럼, 유언처럼 마지막까지 목놓아 외치시던 아버님, 당신의 그 모습이 아직도 저희 눈에 선합니다. 참아버님 성화이후 참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사생결단, 순교의 심정으로 저희들도 끝까지 불변의 심정으로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어머님을 모시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어 6개월 노정을 반드시 승리하여 신통일세계 안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고 간구했다.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은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께 보내는 서신: 아버님을 위한 선물>을 대독했다.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은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보고싶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보고싶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는 지난 10년간 참어머님께서 중단 없는 전진으로 사생결단, 전력투구로 저희들을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어머님을 닮아 사생결단, 전력투구, 중단 없는 전진으로 천일국을 향해 모두 전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라고 밝히며 역만세 사창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1



2

- 1 성초점화를 하고 있는 참가정 대표
- 2 참가정 대표경배
- 3 보고기도를 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 4 말씀훈독을 하고 있는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 5 억만세 삼창을 선창하고 있는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
- 6 억만세 삼창



3



4

他人眞の父母天宙聖和10周年天一國敬禮記念式
 heon Il Guk Gyeongbae Ceremony for the 10th Anniversary of
 sion of Sun Myung Moon, the True Parent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5



6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기념식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는 천력 7월 17일(양 8.14) 오전 9시 30분,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참가정과 세계 전현직 국가수반 및 주요인사를 비롯해 통일가의 축복가정, 식구, 평화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HJ 글로벌아트센터를 중심한 전세계 194개국에서 온 · 오프라인으로 거행됐다.

특별히 서밋 & 콘퍼런스, 희망전진대회를 위해 참가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제22대 총리, 뉴트 김리치 미국하원의원, 전 니제르 총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 · 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 25명의 청년부 장관,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 IAPD, ACLC, KCLC, WLCL 지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문선명'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9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어 생중계 진행됐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성화축제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형식이 어우러진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의 주제 '여정'은 2012년 9월 3일 성화하신 참아버님의 생애 업적을 기리며 참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업을 참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기념공연은 참아버님의 생애를 무용, 합창, 연극, 뮤지컬 등을 옴니버스로 표현한 총 5막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기념공연 시작을 알린 프롤로그는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참아버님의 일대기와 성화 이후 섭리가 영상으로 표현돼 참석자들과 함께 아버님의 삶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추모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희망 가득 나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2,000여 명의 연합합창단과 청년합창단으로 이뤄진 피스카이어 합창과 타악팀 퍼포먼스를 통해 서막을 열었다.

1막 '창조의 여정'은 무용극과 합창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독생자 독생녀 현현까지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평화와 통일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막은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평화세계 창건을 위해 걸어오신 길을 한 편의 뮤지컬로 표현했다. 특별히 참아버님 역에는 국내 뮤지컬계 대부라 할 수 있는 남경을 배우가 열연했다. 정상급 출연진은 1990년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회담, 1991년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등으로 참아버님 생애를 담아냈다.

3막 ‘승리의 여정’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10년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이끈 참어머님의 불굴의 의지와 업적,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식구들이 다짐하는 내용으로 표현했다. 피스카이어 합창과 참석자들이 성가 ‘영광의 은사’를 함께 부르는 대규모 합창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수오스 야라 캄보디아 외교분과위원장(캄보디아 훈센 수상 추모사 대독),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브리기 라피니 사헬 · 사하라(CEN-SAD) 국가공동체 의장의 추모사 등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세계지도자들의 화환과 추모 축전이 이어졌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2월에 개최된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채택된 2022 서울선언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영토,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가 더욱 발전되어 실현될 것이다.’라며 “서울선언을 기반으로 금번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채택된 보편적 평화헌장은 놀라운 신통일세계를 향한 발전을 보여주며 공생 · 공영 · 공의를 중심한 항구적 평화 세계 실현의 공통된 비전을 보여준다.”고 수오스 야라 캄보디아 국회 외교분과 위원장의 대독을 통해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추모사에서 “생전 문선명 총재는 공산주의 가장 본질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을 찾아냈고,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자유와 가정, 신앙이라는 영원한 기둥이 미국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은 기나긴 평화실현 과정의 출발점이었으며 평화실현을 위해 수고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남북한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되는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추모했다.

브리기 라피니 사헬 · 사하라 국가공동체 의장은 “전쟁과 분쟁을 비롯해 다양한 재앙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시민들을 늘 먼저 생각했던 문선명 총재는 생애와 업적을 통해 세계에 가늠할 수 없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에 사헬 · 사하라 국가공동체를 대표해 본 기념식을 축하드리는 바이다.”며 “2019년에 니제르 수상 재임 중에 10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대륙 평화서밋에 평화의 어머니가 되는 한학자 총재를 초청했으며 니제르 정부와 기관은 물론 다수의 시민까지 한학자 총재의 위대한 평화메시지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서 “모성애가 충만한 한학자 총재의 활동은 인류에게 희망이다.”라고 확신했다.

특별히 이날 문선명 총재 천주성화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름으로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에게 조전과 화환 댕기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함께 동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부르는 영상으로 시작한 에필로그 ‘부모님이 사랑하신 노래’가 진행됐다. 기념공연 마지막 무대는 창단 60주년을 맞은 리틀엔젤스예술단이 장식했다.

기념공연 이후 참부모님의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케이크 커팅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기 천성입성, 안착완성의 날을 경하드리고, 지난 10년 천일국 안착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참어머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케이크 커팅식 후 참부모님께서는 ‘축복’이라고 적힌 천복주머니에 평소 참아버님께서 즐겨 드셨던 호박엿을 한가득 담아 참석한 전체에게 선물로 하사해 주셨습니다.

이 후 말씀을 통해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맞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참된 자녀되길 소망해 주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지상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어머니와 하나 되시라 합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하늘에서 인류 앞에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함께하심을 전파하여 인류 전체가 하늘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효자 효녀 충신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보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에 행사의 전체 참석자들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해 당신을’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성화축제는 주진태 신한국 공동대륙회장, 방상일 신일본 공동대륙회장, 용정식 신미국 공동대륙회장 선창의 억만세 사창으로 성료됐다. 



- 1 하늘부모님께 꽃다발을 봉정하시는 참부모님
- 2 성화축제 기념식 전경
- 3 사회를 보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 4 세계지도자들의 화환과 추모 축전 명단
- 5 (왼쪽부터) 추모사를 하고 있는 전 니제르 총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 (CEN-SAD) 사무총장, 아세안 유니언 의장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 추모사 대독을 하고 있는 수스 아라 캄보디아 외교부와 위원장
- 6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보내온 조전과 화한 덩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연합 선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10년에 즈음하여 한민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예도의 뜻을 표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용인 문선명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추억될 것입니다.
 문선명선생의 용지를 이어가는 세계평화연합의 모든 일이 잘되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2022년 8월 13일



참부모님 당부의 말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식
천일국 10년 천력 7월 17일 (2022. 8. 14) | HJ글로벌아트센터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와 귀빈,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예,」 참아버지께서 무엇이냐 말씀하십니까?

하늘부모님의 소원, 참부모의 소원은 지상에서 인류를 사랑하고 품어, 당신의 창조이상을 펼쳐나가는 지상천국의 생활입니다. 참아버님도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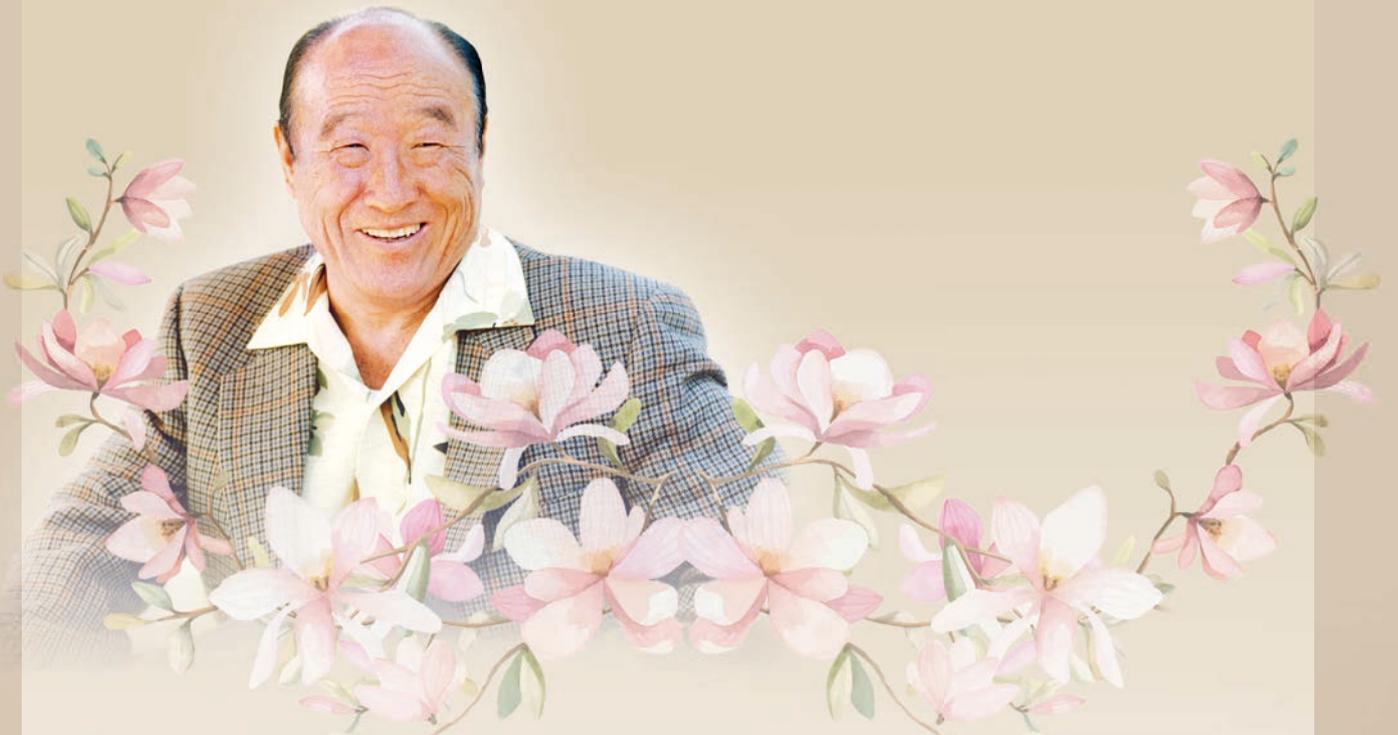
그러나 타락 이후 인류역사는 너무도 힘든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희망 보다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사상으로 인한 문제, 질병 문제는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하늘부모님이 꿈꾸셨던 지상천국의 환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를 힘들게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인류와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아버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희망 없이 지나가는 결과를 놓고 멈추어선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아버님이 지상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하나 되어 인류 앞에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전파하여, 인류 전체가 하늘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효자·효녀·충신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보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까? 「예,」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기념 특별오찬

문선명 총재 성화 10주년 기념 '성화축제 기념 특별오찬'이 천력 7월 17일(양8. 14) 천정궁 연회실에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은 프랜시스코 로하스 아라베나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 이하 UPEACE)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선명·한학자 총재 명예박사 수여식이 진행됐다.

UPEACE는 인류에게 평화를 위한 모든 인류 사이에 이해, 관용 및 평화공존의 정신을 장려하고 민족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UPEACE는 정책 입안자, UN 직원 및 기타 정부 간 조직, 비정부 조직, 실무자, 학계 및 공무원을 위한 인권 교육, 훈련, 연구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 기관, 전 세계 여러 지역(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과 깊은 동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여식에 앞서 양창식 중미 UPF 회장은 "대학원 설립자는 문선명·한학자 총재와 함께 모스크바/북한 방문에 동참했던故로드리고 카라조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평화대사)이다. 유엔평화대학 명예박사 학위는 그간 노벨상 수상자나 정상들에게만 수여되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2년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10주년에 이르기까지 통일가를 중단 없는 전진으로 이끌고 계시는 참어머님은 지난 '2015년 중남미 니카라과 마나과 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이어 금번 두 번째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통해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라고 전했다.

프랜시스 로하스 총장은 "그간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펼쳐 나온 세계평화를 위한 공로에 참으로 감사드린다. UPEACE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유엔 대학 총장, 주최국 정부 UPEACE총리가 지정한 2명의 대표와 학계 대표 15명을 포함한 저명인사 17명으로 구성된다. 금번 학위 수여 결정은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한학자 총재께 드리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UN 총회의 권한 부여에 따라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의 항구적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생애와 세계적 굿 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한 뛰어난 리더십, 지구촌 한 가족 공동체 건설과 평화문화 촉진을 위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여 본 학위를 수여합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 (2022. 8.14, 유엔 평화대학원 명예박사학위 내용 중) 



- 1 승리제의
- 2 UN평화대학원 명예박사 수여식
- 3 꽃다발 봉정
- 4~7 예물봉정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항구적 평화세계 콘퍼런스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념하여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이하 SLC)가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이란 주제로 천력 7월 14일~7월 18일(양 8.11~8.15) 서울 롯데호텔 월드와 경기도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올해 2월 개최되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금번 SLC는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의 주제 아래 157개국 남북공동수교 정상 및 정치·경제·종교·언론·학술 등 각계 지도자 300여 명과 온라인을 통해 성대하게 열렸다.

SLC는 11일 SLC의 근본 취지와 문제의식을 담아 두 개의 섹션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토마스 월시 UPF 세계의장 사회로 진행된 세션 1은 사회자의 개회선언, 사무엘 하데베 영성과 계시의 성회 선지자의 개회기도,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 무리드 수장의 평화메시지, 기조연설(6명: 보리스 타디치 제3대 세르비아 대통령, 이브 레테를 제48회 벨기에 수상, 에후드 올메르트 제12대 이스라엘 수상, 네지하 라비디 전 튀니지아 여성가족부 장관, 헤르만 블랑코 알바레스 콜롬비아 상원의원, 그리고레 노박 몰도바 국회의원)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세션은 에크 닷 다칼 UPF 아시아 대륙의장 사회로 진행됐다.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와 전문가들(10명: 속 시파나 캄보디아 아시안 비전 연구소 이사장, 수나이나 싱 인도 날란다 대학 부총장, 아디 코일라 나일라티카오 제4대 피지 영부인(2009-2015), 부바네스와르 칼리타 전 인도 국회의원·인도 IAPP, 차이용 샷지 파논 전 태국 주미 대사, 파트리시아 테라자스 바카 멕시코 국회의원, 앤 히긴스 바하마·유네스코 세계 무용 이사장, 데이브 아크바르샤 피카르노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로스 로버트슨 뉴질랜드 국회의원, 수바쉬 카이지 스투스타 네팔 주체사상 아시아 지역 연구소 사무차장)은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한평생을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로 살아오신 참아버님의 생애와 업적을 높이 기리며, 참여머님의 전 세계적 평화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왼쪽 위부터) 사회를 맡은 토마스 월시 UPF 세계의장, 개회기도를 하는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영성과 계시의 성회), 기조연설을 하는 보리스 타디치 제3대 세르비아 대통령(2004-2012), 개회기도를 하는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 무리드 수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네지하 라비디 전 튀니지아 여성가족부 장관,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헤르만 블랑코 알바레스 콜롬비아 상원의원,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그리고레 노박 몰도바 국회의원, 좌장 에크 닷 다칼 천주평화연합 아시아 대륙 회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속 시파나 캄보디아 아시안 비전 연구소 이사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아디 코일라 나일라티카오(2009-2015) 제4대 피지 영부인,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파트리시아 테라자스 바카 멕시코 국회의원,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앤 히긴스 유네스코 세계 무용 이사회 회장(바하마),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로스 로버트슨 뉴질랜드 국회의원(1987-2014),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수바쉬 카이지 스투스타 네팔 주체사상 아시아 지역연구소 사무차장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개회식



1 평화헌정 발의 2 평화 협약식 3 발의문에 서명 하고 있는 문연아 UPF 한국의장

문선명 총재 성화 10주년 기념하여 열린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이하 SLC) 개막식’이 천력 7월 15일(양 8.12) 오전 9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뉴트 킹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스티브 하퍼 전 캐나다 수상, 전 니제르 총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 짐 로저스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회장 등이 참여해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논의하고, 157개국 남북공동수교 정상 및 정치·경제·종교·언론·학술 분야의 지도자와 글로벌 시민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평화의 선구자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와 업적,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시는 참어머님의 중단 없는 전진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개회선언, 개회공연(리틀엔젤스), 정상들 입장, 초종교합수식(남북 공동수교 국가 157개국 80여개의 종단을 대표하여 10명의 종단대표자)과 평화기원(플라 화



(왼쪽 위부터) 개회사를 하고 있는 윤영호 한반도 평화서밋 공동실행위원장,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축사를 하고 있는 스티브 하퍼 전 캐나다 수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전 니제르 총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 개회 기도를 하고 있는 플라 화이트 목사, 삼데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대행자, 축사를 하고 있는 짐 로저스 UPF International 수석고문

이트 목사), 개회사(윤영호 평화서밋 공동실행위원장), 축사, 평화협약식, 기조연설, 평화협약식 발의, 폐회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영호 한반도 평화서밋 공동실행위원장(이하 공동실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항구적인 평화세계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안착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한사람이 꾸는 것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된다.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그토록 바라고 실천했던 한반도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세계 건설을 위해, 오늘 모인 세계정상 및 지도자들의 지혜가 더해지는 평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영호 공동실행위원장은 지난 7월 8일 불의의 사고로 서거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특별추모식을 통해 세계지도자들과 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뉴트 킹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교와 이교도 사이의 긴장은 항상 존재해 왔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면서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수상의 피살사건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의하게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하퍼 전 캐나다 수상도 축사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부터 국제 정세는 급변했고, 전 세계와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독립국으로서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에 대화와 평화의 손짓을 건네 호전적인 야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전쟁의 희생을 딛고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인류의 가장 큰 성공 국가 중 한 곳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은 주변 동맹국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아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2017-2021)의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서밋을 주최하여 UPF와 세계평화실현을 위해 만기 힘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한다. 또한 워싱턴 타임스 창간 40주년을 축하하며 한평생 진리, 신앙, 가족을 수호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한 문선명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일어난 아베 총리 저격사망 사건은 끔찍한 범죄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아베 총리는 좋은 친구였고 위대한 일본 정치인이기에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할 것이고, 유족들과 일본 국민 전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며 더 나은 미래다. 우리에게는



1 초종교합수식 2 리틀엔젤스예술단의 개회공연
 3 니제르 대통령의 평화협약 취지문 대독을 하고 있는 이브라힘 나타투 니제르 교육부 장관, 평화헌정 발의를 설명하는 댄 버튼 전 미 하원의원·IAPP 공동위원장

분열과 역경 시련의 세월을 넘기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힘이 있다. 필요한 것은 경제 교류와 협력의 미래를 구축하는 용감한 지도자들이다. 우리의 안보와 번영 평화의 축복을 누릴 세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 기도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제48대 미국 부통령)은 “나의 아버지 에드 펜스 중위는 한국전쟁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다. 자유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전쟁에 참전해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다.”며 “위대한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SLC 행사에는 전 니제르 총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 호세 마누엘 바로소 제11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무장관(2018-2021)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조연설에 동참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축하 대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 존중과 상호원조를 하기를 바란다. 다자주의·다자간 협력·다종교 축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은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집단적이고 다자적인 우리의 노력에 이정표가 됐다. 다음 행보는 서로 협력해 평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월드서밋 2022 서울선언’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짐 로저스 UPF International 수석고문이자 비랜드 인터레스트 Inc회장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 상황은 우리의 평화를 향한 희망을 꺾고 있다.”면서 “전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역지력과 함께 평화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한은 이전에 하나의 국가였고, 동일한 조상,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연대와 통합의 가능성이 큰 곳이다.”라고 말하며 “남북한을 합치면 8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큰 국가가 된다. 갈등 상황에서 쓰이던 막대한 방위비를 아껴 다른 분야와 인프라에 투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전 세계 많은 기업과 국가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평화협약식은 이브라힘 나타투 니제르 교육부장관이 니제르 대통령의 평화협약 취지문 대독 후 윤영호 공동실행위원장과 전 니제르 총리인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의 협약 체결로 성료됐다. 이날의 핵심의제인 평화헌정발의식은 댄 버튼 전 미 하원의원·IAPP 공동위원장의 평화헌정발의 취지 설명 후 참석자 전원의 의지(서명)를 모아 발의됐다. ㄸ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분과세션:

워싱턴 타임즈 창간 40주년 기념식

워싱턴 타임즈 창간 40주년 기념을 겸해 진행된 분과세션은 천력 7월 15일(양 8.12) 롯데월드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를 맡은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의 개회선언, 주요 지도자들의 기조연설, 폐회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 첫 주자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특사,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제24대 미국태평양사령관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월터 샤프 전 UN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국사령관,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교수(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류슈란 전 대만 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워싱턴 타임즈 창간 40주년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탐 맥데빗 워싱턴 타임즈 회장은 워싱턴 타임즈 창간 배경과 주요 편집 방향 그리고 참부모님의 사상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노력과 포부에 대해 보고했다. 탐 맥데빗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에도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워싱턴 타임즈는 참부모님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 문화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타임즈의 발전을 이끌어 온 크리스토퍼 돌란 워싱턴 타임즈 사장과 찰스 허트 워싱턴 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분과세션은 참석자 전원의 축하 속에 막을 내렸다. 



워싱턴 타임즈 40주년 축하 기념사진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특별세션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이란 주제로 천력 7월 15일(양 8.12) 오후 4시부터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환영사, 기조연설 및 축사, 특별연설, 특별사례발표, 종교의 자유 결의문 채택(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황청 산하 재단인 국제 가톨릭 원조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가 2년마다 19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2021년 자료 인용)’에 따르면 세계인구 67%인 52억명이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플라 화이트 트럼프 정부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은 “평화는 신앙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문선명, 한학자 양위분께서는 변함없는 신앙과 희생의 삶을 통해 실천하시는 분이다. 한학자 참여머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루려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호 천주평화연합 세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특별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정의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 폭력 탄압의 사례에 관해 보편적 공감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불의





(왼쪽 위부터)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환영사를 하고 있는 탐 맥데빗 워싱턴 타임즈 회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플라 화이트 목사,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윤영호 FFWPU 세계본부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고토 도오루 납치·감금 강제개종피해자회 대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마사모 인트로빈 세계신종교학회 이사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돈 미어스 에벤젤 대성당 주교,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곤도 노리시게 세계가정연합 일본 법무국장

의 사고로 희생한 아베 수상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전하며, 유가족과 일본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편향된 언론 보도로 인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에게 인신공격이 있으며, 그 중심에 납치·감금 탈회 강요를 목인해온 변호사들이 있다.”라며 “이 문제는 지난 2014년에 유엔 인권기구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다루어져 일본 정부에 수차례 권고를 뒀으며, 미국 국무부의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다뤄진다.”

“작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정연합 신도 ‘납치·감금 탈회 강요’를 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창시자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가 살아있는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더욱 전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곤도 노리시게 세계가정연합 일본 법무국장은 “가정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 일본에서는 종교탄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당시 ‘기독교 목사들’과 ‘반대 학부모회’ 그리고 ‘좌익세력’까지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세 주체가 있었다.”라며 “기독교 목사들은 통일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붙였고, 좌익세력은 통일교회 우호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사상적인 대립을 이어갔다.”라고 전했다.

고토 토루 납치·감금 강제개종피해자회 대표는 “일본 매스컴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는다. 12년 5개월에 걸친 납치·감금 체험사례를 전하고자 한다.” (영상시청) “1966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연합 신도에 대한 감금사건은 4,300건이 넘으며 작년에도 감금 사건이 발생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충격 사건이 발생한 후 다시 가정연합 인사들에 대한 감금과 설득을 권장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시 겔 슬로바키아 정치인이자 종교의 자유 촉진을 위한 유럽연합 특사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이탈리아 세계 신종교 연구소 이사장 마사모 인트로빈의 주제에 대한 지지 발언과 돈 미어스 주교는 보편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특별세션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심도 있는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참석한 주요 세계지도자들의 종교의 자유 결의문 채택(사인)을 끝으로 성료됐다.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천력 7년 16일(양 8. 13)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의 생중계로 개최됐다.

로버트 키틀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신아시아 태평양 천의원장) 사회로 진행된 국제학술대회는 토마스 월시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과 진성배 효정학술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덴 버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공동위원장의 축사,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특사, 프랜시스코 로하스 아라베나 유엔평화대학 총장, 존슨 토리비용 제8대 팔라우 대통령, 이브라힘 나타투 니제르 교육부장관, 마틴 라미레즈 네브리하 대학 분쟁연구센터 의장, 노벨상 수상자의 기조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대주제 아래 금번 학술대회는 ‘신통일한국의 비전’, ‘신통일세계의 비전’, ‘하늘 부모님 성회와 God Conference’, ‘청년-여성운동 그 전망’, ‘과학통일운동’, ‘언론과 경제’, ‘인성교육과 대학의 미래’ 등 총 3개 Session을 7개의 주제로 20명의 발표자가 메시지를 발표했다.





Session 1,3 발표자 및 해설자(위), Session 2 발표자 및 해설자(아래) 기념촬영

Session 1

<사 회> 자크 마리옹 UPF 유럽 대륙 의장

1. 신통일한국의 비전

<발표자> 김근식 경남대학 교수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 대학 겸임 교수

<해설자> 바르톨로메우 쿠르몽 박사, 프랑스 국제전략관계연구소

2. 신통일세계의 비전

<발표자> 토마스 워드(영상 발표)

첵 바나릿 캄보디아 아시안 비전 연구소 부사장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러시아 중국센터 수석연구원(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연구소)

<해설자> 윌리엄 레이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UTS 교수

Session 2

<사 회> 프랑코 파몰라로 박사

3. 하늘부모님 성회와 God Conference

<발표자> 프랭크 카우프만 Twelve Gates Foundation 재단장

마리벨 바레토 브라질 교육 심리학자

<해설자> 누노 안드레 아마랄 앤툰즈 포르투갈 노바대학교 박사

타일러 헨드릭스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UTS 명예총장

4. 청년-여성운동 그 전망

<발표자> 문난영 전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Lan Young Moon)

로버트 키틀 신아시아태평양 UPF 공동의장, 사미라 피노 세계평화학술인연합 위원장

<해설자> 수나이나 싱 교수, 인도 날란다 대학 부총장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국제학술대회 전경

Session 3

<사 회> 토마스 셸로버 IAAP 세계평화학술인연합 공동의장

5. 과학통일운동

<발표자> 그레고리 브리렌드 전 국제과학통일회의의 전무 이사

켄나디 시포프 모스크바 국립대학 진공물리학 센터장(영상발표)

마틴 라미레즈 네브리하 대학 분쟁연구센터 의장(노벨상 수상: 영상발표)

6. 언론과 경제

<발표자> 토마스 맥데빗 워싱턴 타임즈 회장

짐 로저스 UPF International 수석 고문(비랜드 인터레스트 INC 회장)

제라드 윌리스 미국 메그놀리아 재단 이사

<해설자> 세니다 메시 알바니아 부총리

7. 인성교육과 대학의 미래

<발표자> 이재일 선문대학 순결학부 학장

프랜시스코 로하스 아라베나 유엔평화대학 총장

이브라힘 나타투 니제르 교육부장관

티모시 파고나치 음탐보 말라위 시민교육 및 국가통합부 장관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분과별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함으로써 신통일한 국과 신통일세계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공생·공영·공의’의 이념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며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세계청년리더스 콘퍼런스 IYLC

세계청년리더스 콘퍼런스(International Youth Leader's Conference: 이하 IYLC)가 천력 7월 15일부터 16일까지(8. 12~8. 13) 잠실 롯데호텔 월드 에메랄드홀과 위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개최됐다.

12일 열린 IYLC는 아다마 둠비아 아프리카 UPF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평화기도, 환영사, Special Gift Ceremony, 축사, 기조연설1, 특별연설1, 평화공연, 기조연설2, 특별연설2, 기조연설3, 청년평화협약식,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무엘 포바 폰키 카메룬 장로교 이사회 이사장과 할리두 압둘라히 니제르 이맘의 평화기도에 이어 니제르 총리를 지낸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년의 비범한 잠재력은 공동체 개발을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 “CEN-SAD는 청년들의 독창성, 창의성, 혁신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녹색 사업, 취업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CEN-SAD는 기업가 정신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풍부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며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탄력적인 아프리카 대륙 공동체의 발전 조건이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이날 Special Gift Ceremony를 통해 “이 시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참부모님,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 발걸음으로 자리를 빛내 준 니제르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 김재현 수석부회장은 “참부모님께서 주창하신 신통일세계를 이루기 위한 비전은 전 세계가 함께 평화라는 동일 목표를 두고 협력하고 공존해야 가능하다.”면서 “나날이 국가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지도자들이 희망으로 미래를 바꿔 나가길 바란다. 오늘 기점으로 향후 전개될 청년지도자들의 평화와 희망을 축복한다.”라고 격려했다.

칼리스타 무타리카 전 말라위 공화국 대통령 부인은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 UN이 만들어졌지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았다. 세계평화가정연합이 이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트디부아르의 유프라지 쿠아시 야오 대통령 젠더 고문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함께 성 평등 확대를 통해서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은 남아 있다. 정치, 종교, 문화,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십이 필요하다.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배제해선 안 된다. 여성이 수동적 구성원이 아니라 적극적 구성원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교육도 이런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트 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아프리카는 영적인 가치를 크게 가진 만큼, 아프리카의 향후 발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낙관했다.

아프리카 서부의 도서국가인 카보베르데의 빌로미나 곤살레스 대통령 대행은 “이러한 활동을 열어준 문선명·한학자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지구촌의 화두인 기후 변화를 사례로 들면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카보베르데는 10개의 도서 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청년이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 청년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 시스템 분야로 확대돼야 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이 각 부문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아프리카의



1 (왼쪽부터)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전 니제르 총리인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 특별연설을 하고 있는 짐 로저스 천주평화연합(UFP) 고문
 2 전 니제르 총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 명예박사 수여식
 3 섭리기관 및 기업체 & CEN-SAD 양해각서(MOU) 체결
 4 참부모님 하사 스페셜기프트 세레머니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전 세계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달했다.

천주평화연합(UFP) 고문이자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아프리카 여성들과 남성들은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용천 재단 이사장과 진성배 효정학술원 원장의 하나님 주의에 입각한 참부모님의 교육철학과 활동 그리고 비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12일 IYLC는 CEN-SAD와 선학 글로벌 교육재단, 선문대학교, HJ매그놀리아 한국재단, HJ매그놀리아 의료재단, 효정학술재단 등 5개의 단체가 청년 평화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청년 지원에 협력한다는 협약식이 성료됐다.

SLC일환의 세계청년리더스 콘퍼런스는 12일에 이어 13일 워커히 비스타홀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SLC에 참석한 니제르 총리를 지낸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사무총장과 아프리카 25개국 청년부 장관, 국내 지도자 12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청년을 대표해서는 세계청년학생연합의 마츠다 코지 세계회장(IAYSP)와 김재현 세계수석부회장, 김동연 한국회장, 대륙별 청년지도자들이 함께해 민간차원에서 아프리카와 대륙별 연대에 대해 고민했다.

행사는 김동연 YSP회장 사회로 오프닝 공연, 내빈소개, 환영사, 기조연설, 섭리기관 및 기업체 소개, 기념촬영, 개회선언, MOU 체결, 폐회선언,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마츠다 코지 세계회장은 환영사에서 “IAYSP는 전 세계 50개국에 국가지부를 두고 활동하는데 1/3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며 “최근 유엔 경제이사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승인받은 만큼 앞으로 통일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더욱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송용천 선학글로벌교육재단 이사장과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김석병 HJ매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 김상균 HJ매그놀리아 글로벌의료재단 이사장이 대표해 CEN-SAD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날 협약에 이어 이날 협약서에는 교육 경제 의료 부문에서 청소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 프로그램 및 활동개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라피니 사무총장은 콘퍼런스 직후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선문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를 수여받았다. 선문대학교는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참가정 운동을 통한 아프리카의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라피니 사무총장은 수락사에서 “먼저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와 명예박사 학위를 주신 선문대학교에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CEN-SAD 국가공동체 평화 구축에 더욱 기여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총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UPF 주최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하 IAPD) 총회’가 천력 7월 15일부터 16일까지(양 8. 12~13)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국내외 종교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총회로 양일간 진행됐다.

첫째 날 오후 진행된 IAPD 총회는 IAPD-아프리카 콘퍼런스로서 아프리카 유니온 54개국을 대표하여 40여 명의 종단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영성 회복’이란 주제로 잠실 롯데호텔 루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IAPD 총회는 바카리 카마라 천의원 아프리카 공동의장 사회로 평화기도, 환영사(영성과 계시의 성회 사무엘 하테베 선지자), 축사(돈 미어스 주교),

기조연설(1. 다니엘 오코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 회장 2. 이사가 수르웨마 부르키나파소 종교관례부 장관 3. 네버스 몸바 잠비아 국가기독교연합 설립자 겸 목사 4. 아프리카 종교 협의회 의장 노쿠졸라 므데데 박사), 선언문 채택(IAPD 아프리카 의장 임보니 하테베),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 IAPD 총회는 천원궁 천승교회(용산)를 중심으로 WCLC(세계성직자협의회), ACLC(미국성직자협회), KCLC(대한민국성직자협의회), 한국종교협의회 소속 다른 종교 지도자 및 신도들이 440여 명 가량 참석한 가운데 ‘평화와 발전을 위한 영성 &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참여머님께서는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본래의 창조 당시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일들을 벌여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희망적인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당부 하셨다.

이날 행사 1부는 마이클 켄킨스 UPF 세계 회장 사회로 개회공연, 개회선언, 환영사, 평화공연, 주제연설1~4로 진행되었고, 2부는 특별세션으로 조지 어거스터스 스타링스 대주교 사회로 평화공연, 종단별 발표, 사례발표, 선언문 채택, 폐회선언으로 진행됐다.

UPF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정치와 종교, 언론을 대표하는 전 세계 각계 지도자들의 오늘의 연설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큰 공감과 울림을 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양일간 진행된 IAPD 총회는 특별히 500여 명의 국내외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에 관련해 겪어 왔던 고충을 공유하고 종교인의 인권에 대한 발언을 통해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본연의 영성 회복을 결의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참부모님 하사 스페셜기프트 세레머니



대륙별 인터내셔널 리더십 콘퍼런스 ILC

문선명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승리를 위한 전 세계 40일 특별정성의 일환으로 대륙별 인터내셔널 리더십 콘퍼런스(이하 ILC)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5개 대륙별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아시아태평양 권역 ILC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해: 글로벌 평화의 문화 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 발표되고 서명된 ‘서울선언’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 통일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지역들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는 취지에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대사 등 전직 국가원수, 국회의원, 시민사회 지도자, 언론, 종교지도자들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8,026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4명의 전직 국가원수의(네팔의 전 부통령 H.E. 파르만과 자, 팔라우의 전 대통령 H.E. 존슨 토리비옹, 파키스탄의 전 총리 Raza Gilani, 그리고 스리랑카

의 전 대통령 H.E. Maithree Pala Sirisena, H.E.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기조연설에 이어 토마스 월시 UPF 인터내셔널 회장은 ‘한반도, 한 문화, 한 민족’이라는 패러다임을 이용해 통일을 위한 서울선언의 개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레이스 스웨 진 타이크 UPF 미얀마 대통령과 혼 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크리스토퍼 드 베네치아 필리핀 평가시안 제4선거구 대표·평화대사가 수여하는 상장이 수여된 후, Hon Ek Nath Dhakal UPF Asia Pacific 회장은 폐막사를 통해 행사의 막을 내렸다.

북미 대륙 ILC가 7월 20일에 워싱턴 타임즈 4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워싱턴 타임즈 발행 40주년 기념 특별 세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40명 이상의 미국 하원의원을 포함한 가운데 워싱턴 타임즈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28일부터 29일까지 북미대륙 ILC는 3,8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한반도 통일의 이념’을 주제로 6세션으로 나눠 다양한 시각에서 그 가치를 조명하고 확산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 (1세션: 120명, 2세션: 830명, 3세션: 458명, 4세션: 742명, 5세션: 783명, 6세션: 921명)

아프리카 권역 ILC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석과 전략과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련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캐시 리그니 천주평화연합 아프리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평화연맹 창립자인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헌신과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시책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평화와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련성을 위한 분석과 전략’에서 ILC는 현재 진행 중인 평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 보다 공정하고 통일된 세상을 추구하는 데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전했다.

국력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세계평화정상연합 아프리카대륙 의장)은 “우리가 모두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건설적으로 모읍시다.”라고 말했다.

유럽 ILC는 ‘피셔로드 베를린’ 대회의 일환으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7월 26일 베를린에서 클로드 베글레 스위스 연방 전 국회의원,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 독일 언론인 클라우스 교



- 1 북미대륙 ILC
- 2,3 아시아 태평양 권역 ILC
- 4 아프리카 권역 ILC
- 5 유럽 ILC(런던)
- 6 유럽 ILC(베를린)
- 7 중남미 ILC

수, 포츠담 대학의 평화교육학 안젤라 미클리 교수 등을 포함하여 2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망에 대해 고찰했다.

이어 8월 4일 영국 런던 ILC는 UPF HQ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하여: 글로벌 평화의 문화 창조’를 주제로 세 가지 세션으로 열렸으며 약 100여 명의 참가자와 유럽 중동지역의 온라인 청중이 참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마이크 발콤 박사는 데이비드 박사와 패트리샤 얼이 조직한 버밍엄의 한 생태 공원에 평화 정원을 짓는 실용적인 UPF 청소년 서비스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그 가치에 대해 말했다.

중남미 ILC는 8월 3일부터(I, II 세션) 4일까지(III, IV) 4개의 세션으로 나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들간의 전체 행사 사회는 Dr. Simao Feraboli 남미UPF 사무총장 진행으로 전개됐다. ILC행사 오프닝은, 신동모 남미 UPF 회장,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

Pastor Ren Rodeny Shiloh New Testament of God Ministries 의해 개최됐다.

세션 I 은 6명의 패널들에 의해 진행됐다. (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 혼. 에드윈 로사스 우르자게스트 볼리비아 다원국 대의원 회의소 제2부통령, Dame Pearllette Louisy 세인트루시아 총독(1997-2017), H.E. 패트리컬 미니즈 바하마 대통령 부인, 혼. 에스메리타 산체스 데 다 실바 파라과이 국회의원, 혼. 러쉬톤 비제이 패레이 트리니다드토바고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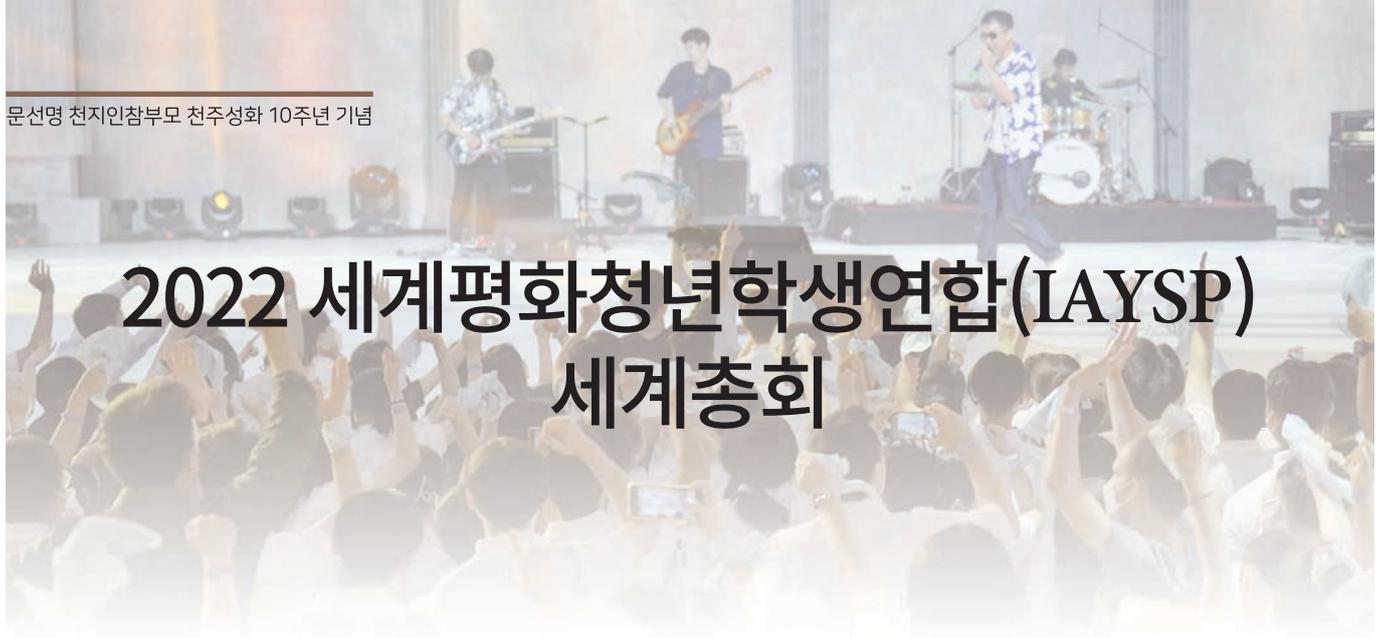
세션 II 는 패널 5명의 동참으로 진행됐다. (Mg. Mercedes S. Giuffre 아르헨티나 카리회원, 클라우디아 카탈디 브라질 국제정치학 교수, 호세 엘버토 알파로 히메네스 전 코스타리카 국민회의 의장, Dr. Fernando Valverde Caman Human Fights and International Justice 센터장, 혼. 페드로 아우구스토 베재리라 브라질 국제연합 멤버)

세션 III 은 7명의 패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상석 중앙아메리카·카리브

벤 지역회장, 후안 카를로스 하스브 엘살바드로 하나님에 의한 카무엘 기독교 목사, 찰스 W. 솔츠 콜롬비아 전 상원의원이자 기독교 교회 목사, 루이스 모레노 에콰도르 성공회 주교회 주교, 카를로스 리몬기스터스 브라질 십자군 운동 박사, Iman Annar Ui Nasir 파나마 아바디아 무슬림 공동체 책임자, 조나스 플로렌시오 예수 재림교 목사)

세션 IV 는 5명의 패널의 참여로 진행됐다. (Dr. Walter Echevarria Vision Actual 잡지사 이사장, 조베이라 카이슬러 버그만 니카라과 상업과학대 총장, 알케도 마가린 도미니카 국가 분쟁 해결 검사장, 엘림 마르티니즈 몬트 과테말라 유엔 발전 고문, 더글러스 로메이 란자 롤란츠 멀티미디어스 볼리샤 그룹의 최고경영자)

이어서 폐회식은 신동모 남미UPF 회장, 양창식 신중남미 대륙 천의원장, 파블로 에스티가리비아 파라과이 열린 성경교회 창립 목사의 연설로 성료됐다. 



2022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LAYSP) 세계총회

천력 7월 17일(양 8.14) HJ글로벌아트 센터에서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세계총회(이하 LAYSP)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성주 한국 2지구 회장과 스티츠 사야카 청년식구 사회로 오프닝 공연, 개회선언, 개회영상, 축사(1, 2), 대회사, Hope Stage 1(공연), HOPE Speech, Hope Stage 2(공연), HOPE Message, Let's Go To HOPE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프리카에서 온 티모시 파고나치 마탐포 말라위 국민통합부 장관과 알하지 무함마드 덩야디 마이가리 나이지리아 경찰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마즈다 코지 YSP 세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금번 YSP 총회는 참아버님 10주년을 기념하고자 ‘희망’을 주제로 했다. 참아버님께서선 전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기

관을 창설하시고, 청년학생들에게 많은 투입을 하셨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참어머님께서 10년 동안 청년학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수원 YSP 한국 5지구 회장은 YSP 출범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통해 “참아버님께서선 세계평화학생연합과 세계평화청년연합을 창설하시고 희망찬 미래인재양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한 기대 위에 2017년 2월 참어머님께서선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을 창설하셨다. 참어머님께서선 “천주평화연합, 여성연합, 청년학생연합이 세계 섭리를 놓고 하나 되어 국가복귀와 세계복귀를 하는데 총력을 다해라.”라고 말씀하셨다. YSP는 하늘부모님성회 아래 모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카프, 성화 어린이를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전했다.

한정민 선문 UPA 생도는 UPA에 대해 보고하며,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참어머님께서선 제일 먼저 참아버님과 함께 타고 다니시며 선교하셨던 헬기를 파신 후, 그 씨돈으로 미래인재양성 기관인 천주평화사관학교를 설립하셨다. 참어머님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밀리터리 아카데미보다 더 크고 훌륭한 사관학교의 사관생도가 되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며 지난 10년 동안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무한한 사랑을 주셨다.”고 말했다.

요시이즈미 토모카 일본 YSP 멤버는 GTGY TOP GUN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TOP GUN은 최근 히트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제목이다. 여기서 탑건이란 생명을 걸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 정의의 파일럿을 말한다. 참부모님께서선 50년 전, 전 세계





1 YSP 세계총회 사회를 맡은 한국 YSP 2지구 김성주 회장과 스타츠 사야카 청년석구
 2 (왼쪽부터) 축사를 하고있는 티모시 파고나치 마탐보 말라위 국민통합부 장관, 알하지무함마드딩야디마이가리나이지리아 경찰부장관, 대회사를 하고 있는 마츠다 코지 YSP 세계회장
 3 호프메세지를 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4 호프스피치를 하고 있는 이수원 YSP 한국5지구 회장

로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시며 이미 탑건이라 칭하셨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참어머님께서서는 청년 공직자들을 모아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탑건 수련을 진행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16세 이후 성화들을 GTGY로 이어 가셨다. 2016년~2019년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매해 2,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나리타 루리카 빅토리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원모평애장학생은 원모평애장학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참어머님께서서는 2013년 천일국 원년 미래인재 양성의 뜻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전개하셨다. 참부모님의 사랑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110개국 15,000명에게 씨앗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장학생들이 섭리적 꿈을 펼치고 있다. 천일국 국립대로 축복해 주신

선문대학교에서도 HJ 장학생들은 지도자로서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참어머님께서서는 국내 10개 종단을 선정해 참부모님의 사랑을 초종교적으로 실현해 나오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한 팔곡리 학생들까지도 장학지원을 해주셨다. 이들 모두가 공통으로 실현하고 있는 꿈은 독생녀 참어머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정영선 효정패밀리아카데미 부점장은 참어머님의 미래 시대 설계 & 심정문화혁명 구체화로서 YSP 신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로니 소두수타 YSP 아시아 태평양 2 회장은 YSP의 시너지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금일 YSP 총회는 UPA, TOP GUN, 원모평애장학, 신

사업, 시너지 등 전체를 결산하는 자리였는데, 내가 행사를 통해 느끼는 점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이 YSP 10주기라는 점이다.”라며 “참어머님께서서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바로 하신 일이 청년 프로젝트이다. 참어머님께서 이를 위해 참아버님과 함께 타셨던 헬기를 처분하시고 원모평애재단을 설립하셨다.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며 장학재단을 운영하셨다. 참어머님께서서는 헬기를 통해 빨리 다니시며 섭리를 진행하고 싶으셨지만, 참어머님의 의중은 청년들을 잘 길러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으셨다. 그렇게 UPA, 크레인스 클럽, TOP USN, GTGY가 탄생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묶어 2017년 YSP를 만드셨다. 그렇게 YSP가 시작되고, YSP가 세상과 다르게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말레이



5 (왼쪽부터) 호프스피치를 하고 있는 한정민 주니어 UPA 1기, 요사이즈미 토모카 청년, 나리타 루리카 빅토리아 효정세계평화재단 원모평애장학생, 정영선 효정패밀리아카페 부점장, 로니 소두스타 YSP 아시아 태평양2 회장
 6 문효진님 가정 문신출-문효진 밴드, 문신흥-문효진 밴드의 무대
 7 축사를 하고 있는 문연아 UPF 한국의장

시아 청년 장관과 나이지리아 청년부 장관도 모실 수 있었다. YSP가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YSP를 통해 새로운 신사업, 애니메이션,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있지만 청년부가 없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라틴 아메리카에는 청년부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 60% 이상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꿈을 못 꾸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그래서 YSP의 비전을 보고 전세계 25개 나라의 장관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참부모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IYLC에서 전 니제르 총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사무총장 참석하에 YSP와 MOU를 맺었다. YSP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꿈을 꾸었기 때문

에 국가를 움직일 수 있었고, 대륙을 움직일 수 있었다. YSP가 참아버님 그리고 특별히 참어머님의 사랑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이 나의 꿈을 넘어 국가를 움직이고, 대륙을 움직이는 꿈이 되었다. 이것이 희망이 아니고 무엇인가? YSP는 NGO가 아닌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우리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이어진 ‘2022 MOONHYJIN MUSIC FESTIVAL’ (이하 문효진 뮤직 페스티벌)은 양권일 YSP 한국 3지구 회장, 정아람 청년 사회로 개최됐다.

문효진 뮤직페스티벌은 양방향 생중계로 전 세계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영상 I, 개최선언 이후 축사, 공연 I, 기념영상II, 공연II, 피날레, 억만세 삼창, 폐회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문연아 UPF 한국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 무엇보다 YSP 세계총회 개최를 축하한다. 그리고 13번째로 열린 문효진 페스티벌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온·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즐겁게, 에너지를 불태워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성화축제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라며, “천정궁에 계시는 참어머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늘부모님을 위해 참아버님을 위해 우리 마음껏 즐기고, 참어머님을 모시고 새로운 내일을 출발하길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공연 I에서는 하니문 밴드, 갬블러크루, 재생, LA BAND, 트랜스픽션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II에서는 문효진님 가정 문신출 문효진 밴드, 문신흥 문효진 밴드의 무대가 이어졌다.

끝으로 피날레 ‘기적소리’를 전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며 억만세 삼창으로 성료됐다.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신한국 특별대륙 중심식구 특별집회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40일 특별활동 및 정성을 위한 신한국특별대륙 중심식구 특별집회가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라는 주제로 천일국10년 천력 6월 22일부터 천력 7월 7일까지(양 7.20 ~ 8. 4)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가정과 신한국 전 지역의 중심식구 및 축복가정들이 참석한 가운데 4 차례에 걸쳐 HJ가든홀과 천정궁에서 거행됐다.

- ① 7.20 제1지구·제2지구·천원특별지구
- ② 7.21 제3지구·제4지구·제5지구
- ③ 7.28 신한국 전체
- ④ 8. 4 신한국 전체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철저한 자체 방역시스템을 가동 하에 진행된 행사는, 1부는 효정찬양, 기념 영상시청(40일 특별정성 출정 기념영상), 개회선언, 경배,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의 환영사(참어머님 서신 훈독), 효정증거

(문효진님 가정의 장남 문신출 군과 차남 문신흥 군), 운영호 세계본부장의 효정특별보고, 효정결의, 신한국 5개 지구회장의 역만세 삼창, 폐회선언(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참어머님을 중심에 모시고 참어머님을 향한 절대 불변의 심정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 지도자 그리고 식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효정증거에 나선 참가정의 문신출 군과 문신흥 군은 하계 40일 개척 전도기간에 임했던 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을 통해 “아직 저희들은 어리고 미숙하며 배워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참어머님께서 항상 간절히 당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 느꼈다. 사랑하는 참아버님, 참어머님을 떠올리며, 우리 미래세대도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라고 증거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우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양위분의 심정권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한다. 아버지 만나러 와서, 아버지 그 뜻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함께 마지막 섭리의 한때인 2027. 제60회 하늘부모님의 날을 위해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하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지상에 계신 참여머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다면 천상의 참여머님과 하늘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2부는 특별히 참여머님께서 천정궁을 찾은 식구들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한 귀한 발걸음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과 기념 촬영을 해주셨다.

참여머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천국생활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이때, 참부모를 모르고 하늘부모님을 모르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해야 돼요. 교육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국가복귀,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가는 길임을 내년 천원궁 천일성전 헌당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섭리의 족구, 한국에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 알겠나? 그렇게 할 거지? 그래, 고마워”라고 말씀하셨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40일 특별활동 및 정성을 위한 신한국특별대륙 중심식구 특별집회를 통해 신한국 특별대륙의 중심식구들은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 1 효정특별보고를 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 2 참여머님 서신을 훈독하고 있는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 3 효정증거를 하고 있는 문효진님 가정의 장남 문신출 군
- 4 효정증거를 하고 있는 문효진님 가정의 차남 문신홍 군





효정증거 부흥마당

<효정증거 부흥마당>은 천력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 8.12~8.13) HJ가든홀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식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날 세션 1은 김영길 세계본부 가정국장 진행으로 개회선언, 효정증거, 효정공연, 주제영상시청(‘빛은 동방에서’), 부흥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로선배 강정원 회장, 문난영 회장, 유중용 회장, 김명대 회장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초창기 교회를 개척해 해 나온 역사적인 내용이 부흥마당을 통해 생생하게 펼쳐진 효정증거에서 문난영 선학UP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955년 나는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처음 접하고 언니와 입교했다. 그 해 겨울에 참아버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박해와 비난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섭리를 따라 나오면서 참부모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정성은 잊을 수 없다.”라고 증거했다.

이어 김명대 회장(430 가정)의 ‘중심의 뜻에 하나되는 신앙과 생활’에 대한 심정적인 효정증거를 통해 올바른 신앙의 잣대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날 진행된 세션 3은 효정공연, 개회선언, 환영사, 천주

성화 전 이야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만웅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회 공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참아버님 천주성화로 전세계 가정연합식구들이 실의에 빠졌을 때 그 식구들을 위로하며 중단 없는 전진으로 일깨워 주신 참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감사를 전하고,

허양 세계 순회사는 “2012년 7월 초(천력) 참어머님께서 주요 간부들을 모으시고 ‘우리에게는 중단이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내가 통일교회를 아름드리나무로 만들 것이다. 구멍이 있으면 매울 것이고 벌레가 있으면 잡으면서라도 미래의 통일을 찬란하게 열어갈 것이다.’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참어머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 나가는 방법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고 참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 나아갈 수 있는 통일이 식구들 될 것을 당부했다.

세션 4는 주제영상 시청(‘효정문화세계창건’), 효정증거, 부흥마당, 효정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노희 효정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1962년 창단된 리틀엔젤스예술단은 민간 평화외교사절단의 역할수행은 물론 한국전통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리틀엔젤스는 참부모님께서 펼치시는 평화, 통일 운동



의 문열이로서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은 “흥진님의 숭고한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어 1984년 유니버설발레단을 창단해 주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모두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유니버설발레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박노희 효정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심숙경 한국 전통춤 연구회 대표의 부흥마당이 펼쳐졌다.

세션 5는 효정공연1, 주제영상 시청1(‘참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효정증거1, 부흥마당1, 효정공연2, 주제영상 시청2(‘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효정증거2, 부흥마당2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엽주 세계화인 협회 회장은 효정증거를 통해 “참부모님의 일생은 희생과 참사랑의 실천이었다. 그 결정판이 방북 섭리였다.”라고 섭리사의 방북의 의미에 대해 식구들의 이해를 돕고 김동규 고려대 북한학 명예교수와 조형국 세계본부 정책 연구원 사무총장의 부흥마당이 이어졌다.

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은 참부모님께서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창설하신 아벨UN(UPF)과 초종교 초교파 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증거했다. 더불어 “평화로운 미래 세계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평생 사랑과 봉사로 실천해오신 참부모님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다. 아벨UN이 펼친 모든 공적은 참부모님의 위대한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 Otsuka Katsumi 신유럽 중동 천의원장, 이현영 UPF 신한국회장의 부흥마당2가 진행됐다.

세션 6은 에필로그로 최지선 아나운서 진행에 따라 주제영상 시청(‘중단 없는 전진’), 개회선언, 부흥마당, 효정공연, 효정증거, 주제영상 시청2(‘효정 천원의 꿈’), 토크박스, 폐회식 등의 순으로 펼쳐졌다.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은 참부모님 양위분을 모시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에 대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지만, 특별히 2018년 참어머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당시 참어머님께서 아프리카 서밋을 결정하실 때였다. 아프리카 하면 나이지리아·케냐 등을 이레 생각 하게 되는데, 참어머님께서는 아프리카 순회 일정만 말씀해주시고 장소에 대해 며칠이 지난 후 말씀해 주셨다. ‘내가 세네갈에 가야한다. 가야 할 이유가 있다. 고레섬이다. 내가 해원하고 기도·정성 들여야 할 곳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참부모님을 모시면서 평생 배워왔지만 양위분의 정성의 준비와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참어머님의 7년의 노정의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섭리를 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참부모님의 섭리가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영계에 계시는 참아버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서 섭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참어머님의 간절함을 통해 이뤄낸 기적이다.”라며 “우리에게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우리의 꿈이 참어머님의 꿈이고, 참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생결단의 심정이다. 끝까지 전진한다면 60개월 뒤인 2027년 신통일세계 속에 우리의 운동이 세상에 증거 되고 양위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날로 펼쳐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양일간 진행된 <효정증거 부흥마당>은 해외지도자 에크나트 다칼 UPF 신아시아태평양 의장과 캐시 리그니 UPF 신아프리카 의장의 효정증거에 이어 주제영상 시청으로 성료됐다. 

- 1 강정원 전 한국종교여성협의회 회장, 문난영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수, 유종영원로 목사, 김명대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부회장의 부흥마당
- 2 황엽주 세계화인 협회 회장, 김동규 고려대 북한학 명예교수와 조형국 세계본부 정책 연구원 사무총장의 부흥마당
- 3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박노희 효정한국문화재단 이사, 김덕수 한국 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심숙경 전 국립국악원 무용단장의 부흥마당
- 4 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 Otsuka 신유럽 천의원장, 이현영 UPF 한국회장의 부흥마당



제10회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하늘부모님 성회 효정누리’ 성화어린이 예배가 천력 7월 24일(양 8.21)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양방향 생중계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프닝 공연(우카탕카), 함께 노래해요(춤추는 효랑이), ‘환영해요’, 참부모님 입장, 경배, 효정봉정, 케이 크 커팅, 예물봉정, 참부모님 말씀, 경배, 참부모님 퇴장, 함께 노래해요(춤추는 효랑이), 효정스피치, 함께 노래해요(춤추는 효랑이), 효정 어린이 시상, 축하해요(MJ크루), 효정이야기 마당(꿈꾸는 효랑이), 효정의 마음, 경품 추첨,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참어머님께서 작년 ‘참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주신 효정누리가 1년 만에 어느새 10회를 맞이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참어머님께서는 직접 부산을 방문하시어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위한 특별활동의 출정식’을 열어 주셨다. 8월 11일이 40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이 10일간의 행사를 다 마무리하는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이러한 정성의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오늘 이 귀한 효정누리를 베풀어 주시고 열어 주시며 직접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참어머님께 깊은 감사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참여머님께서 오늘 10주년을 맞는 효정누리를 통해 성화행사의 마지막 3대권 예비로 마무리 지어주시며 우리 전체가 함께하는 시간을 열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왕아빠 만나요, 왕엄마 힘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3대권이 함께하는 효정누리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왕아빠 · 왕엄마의 심정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율동 하면서 정말 심장공동체 식구공동체인 오늘이 되기 바란다.”며 참여머님의 심정을 전하고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효정봉정은 참여머님을 모시고 전체를 대표해서 네 팀이(신한국 대표 최우수 목회자, 최우수 식구 그룹, 우수한 실적을 거둔 청년 그룹, 축복으로 태어난 축복가정 2, 3세 어린이) 효정의 마음을 담아 금번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대승리와 지난 40일 특별활동의 대승리를 봉정했다.

케이크 커팅식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대승리와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어머니 위로해드립니다다’ 라는 대주제 아래 40일 활동 대승리를 담은 의미에서 진행됐다.

예물봉정은 효정의 마음을 담아 전체를 대표한 세 팀이(신한국의 미래세대 YSP 회장, 천보특별가정 대표, 성화어린이 교육과 효정문화 확산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효정특별프로젝트국, 효정희망연구소, 전국 성화어린이 교사총회 교사)를 봉정했다.

참여머님께서 “오늘 참부모 가정의 4대권 문정아 양이 탄생했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 종교 역사에 있어서 참부모의 등장은 기적입니다. 참부모. 여기에 모인 1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님 누나 3대권 4대권까지 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왕엄마요) 이 왕엄마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늘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희망적인 지상생활을 할 수 있는 때다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그 동안 하늘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린 인류를 대신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 하늘부모님에게 기쁨과 송영을 희망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지요? 「예,」 마음껏 기쁘고 하늘부모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다.

효정 이야기 마당은 참여머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으로 전 생애를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로 살아오신 참여머님의 생애를 담은 이야기를 (1) 소명 (2) 참부모 되는 날(성혼) (3)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참부모님의 평화운동) (4) 참여머님 성화로 선보이며 많은 감동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참여머님 천주성화 이후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홀로 승리하신 참여머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효정누리를 마련해 주신 참여머님께 감사를 올렸다.



하늘부모님께 기쁨·감사의 송영을 드리자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제10회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천일국 10년 천력 7월 24일 (2022. 8. 21) | HJ글로벌아트센터

사랑하는 전국의 축복가정, 1대·2대·3대·4대 여러분! 오늘 참부모 가정의 4대권, 문정아 양이 탄생했습니다. (박수)

인류 역사 6천년, 종교역사에 있어서 참부모의 등장은 기적입니다. (박수)

참부모! 여기에 모인 1대 할아버지·할머니, 엄마·아빠, 형님·누나, 3대권·4대권까지 '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왕엄마.」 왕엄마! 그래요, 왕엄마입니다.

내가 참아버님 성화 후에 천정궁으로 아기들까지 불렀습니다. 천정궁에 올라온 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층에 왕엄마가 거하고 있는 거실 앞 복도에는 작은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수족관에는 큰 물고기도 있지만, 아주 적당히 작은 '백설 공주' 물고기가 있습니다.



1 케이크 커팅 2 꽃다발 봉정 3~4 예물봉정 5 효정스피치 시상 6 효정 이야기 마당

성화 후에 그 물고기가 새끼를 한 5년간 계속 낳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여다보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기다리는데 새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놈만이 있거나 수놈만이 있어서 새끼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고기를 다루는 물고기 관리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는 수족관 청소와 더불어 물고기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8월이 되자 새끼 한 마리가 보이더니, 며칠 후에 네 마리, 모두 다섯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박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물고기의 수명은 5년입니다. 여기 3대권·4대권이 있는데,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지상에서 참부모를 통한 자녀들과 함께 지상생활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100년 미만입니다. 왕엄마·왕아빠의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아빠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엄마가 지상에 있는 동안 하늘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름답고 희망적인 지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예.」 인간의 타락으로 하늘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린 인류를 대신해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늘부모님에게 기쁨과 송영과 희망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음껏 하늘부모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PEACE ROAD 2022 베를린 대회

‘PEACE ROAD 2022 베를린 대회’는 천력 6월 29일(양 7.27),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맞아 베를린(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일대에서 열렸다.

금번 행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동서 간 신냉전 기류의 고조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개최됐다.

2013년 ‘한·일 3,800km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을 제1회로 하여 매년 개최되어 온 ‘PEACE ROAD 2022’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국으로 만들지 말고, 유럽에 새로운 벽을 쌓지 말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대장정의 막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과 유럽지역의 PEACE ROAD 참가자를 비롯한 베를린 시민, 한국 교민 등 50개국에서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평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쏟아냈다.

‘PEACE ROAD 2022 베를린 대회’는 콘퍼런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난민지원활동 등으로 4일간에(7월 26일~29일) 걸쳐 다채롭게 진행됐다.

천력 6월 28일 (양 7.26) 피스로드 콘퍼런스가 천주평화연합(이하 UPF)과 세계평화청년연합(YSP) 공동 주최 하에 구 동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검을 녹여 쟁기로: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 가능성’이란 주제로 이뤄졌으며, 두 번째 세션은 ‘피스로드, 지속이 가능한 평화를 향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양)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한국이 70년 후에도 분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한국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양) 1987년 8월 2일 독일 베를린 세계 카프 대회에서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고 외쳤을 당시 대학생이었던 송광석 PEACE ROAD 조직위원회 한국 실행위원장(남북통일은 동국민연합 중앙회장)은 올해 10회를 맞은 ‘PEACE ROAD 2022 베를린 대회’에 실행위원장으로 참석했다.



독일에 올려퍼진 '평화'외침



피스로드 2022 베를린 대회

송광석 한국 실행위원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PEACE ROAD 통일대장정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문선명 총재가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 통일회의(ICUS)에서 주창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세계를 초고속 도로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국경을 철폐하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지구촌 평화시대를 열자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송광석 회장은 2022년 7월 27일 행사가 개최된 연유에 대해 “2013년 7월 27일은 한학자 총재가 한·일 지도 위에 ‘조국 통일 참부모님 학자 한문. 2013. 7.27’이라 사인한 날을 ‘피스로드 기념일’로 정했고, 남북 휴전 협정일이기도 한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PEACE ROAD 2022 베를린 대회’는 100여 명의 자전거 종주자들이 베를린 TV 타워를 출발해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공연, 대회사/축사 등의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국으로 만들지 말자, 유럽에 새로운 벽을 쌓지 말자’는 슬로건으로 독일 등 유럽 시민, 한국 교민 등 세계 50개국에서 1천여 명이 참여했다.

마이클 발콤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유럽회장은 “냉전시대 철의 장막은 지역의 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속에 벽을 만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유럽의 분쟁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장을 출발해 베를린 서독 지역을 걷는 평화행진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원 코리아’ 평화 구호를 힘차게 외쳤으며, 그 행렬은 500m에 달했다. 이후 베를린 대회 주요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임시 거주지 ‘몰도바’로 이동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피스로드 2022 통일대장정은 (양) 6월 19일 국내 거제도에서 출발식을 가진 후 (양) 8월 15일까지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160여 개국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에 지구촌의 항구적 평화와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피스로드 2022 통일대장정

효정 스타 페스티벌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2022 효정 스타 페스티벌”이 천일국 10년 천력 7월 16일 (양8.13) 효정문화원 문화홀에서 전국 YSP 성화, 청년식구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연은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이뤄졌으며, 입장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해 피스링크에서 온라인 생중계됐다.

김동연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한국대학원리연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2년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념하여 참아버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 심정을 상속받아 참여어머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의와 희망을 노래와 춤으로 펼치고자 한다.”라며 “성화를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써 승화시켜 주신 참부모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라고 전했다.

윤영호 효정문화원 원장(세계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스타는 별이다. 효정 최고의 스타는 참아버님, 참여어머님이다. 평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효정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참부모님의 효정의 삶을 우리 2세들이 물려받아

참부모님을 모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천일국의 효정의 스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싱어송라이터 우아한의 MC로 진행된 “2022 효정스타 페스티벌”에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0개의 팀이 2시간 동안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무대에 올라온 최종 10개의 팀이 수준급 무대를 선보이며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효정 스타 페스티벌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효정문화원장 및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경연결과> (시상: 한국대학원리연구회 김동연 회장)

노래부문 대상: YouthN 댄스부문 대상: 천부보은고

노래부문 최우수상: 류선경 댄스 최우수상: 유메노히

노래부문 우수상: 천복궁 천승교회 청년대학부 찬양팀, 조동건

댄스부문 우수상: 신우와아이들, 천화, 통일무도

참가한 10개 팀과 참석자 전원은 피날레 무대로 ‘효진님의 기적소리’를 부르며 흥겹게 마무리했다. 



수상자 단체 사진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효정 천보특별대역사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효정 천보특별대역사’가 천일국 10년 천력 7월 15일부터 16일(양 8.12~13) 까지 HJ가든홀에서 온·오프라인 통해 거행됐다.

이번 대역사는 12일(양) 효정 문화공연에 이어, 13일(양) 1부 효정 천보특별 찬양역사와 2부 효정 천보특별기념식으로 펼쳐졌다. ‘효정 천보특별대역사’의 하이라이트인 2부 효정 천보특별기념식은 김인천 HJ천주천보수련원 사무총장 사회로 평화합수식, 효정무 및 들러리입장, 고천감사문 봉독, 효정봉헌서 봉헌, 효정봉헌식, 천심 합심 공명기도, 조상축복식 및 1세 미혼영인축복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천 HJ천주천보수련원 사무총장은 개회선언에서 “참부모님께서 집전하시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효정 천보특별대역사’와 ‘효정봉헌식’은 하늘부모님의 보배인 참부모님의 놀라운 은사이다.”임을 밝히며 이날의 섭리적 의의를 설명했다.

‘평화합수식’은 신한국, 신일본, 신미국, 신중남미, 신아시아-태평양, 신아프리카)을 대표하여 7명의 종단대표자가 초종교 합수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이기성 천심원장이 고천감사

문 낭독하며 효정봉헌식을 위한 기대를 조성했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이날 ‘고천감사문 봉독’을 통해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2022 효정 천보특별대역사’의 거행”을 하늘 앞에 보고하고,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 비전 2027을 승리”를 위한 결의를 올렸다.

이기성 천심원장 내외 집전하에 분원장을 중심한 8명의 공직자가 축복가정들의 소원과 공적인 뜻 성사를 위한 ‘효정봉헌서 봉헌’함을 양쪽 제단 위에 차례로 봉헌하며, 하늘부모님 앞에 이 모든 내용이 상달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효정봉헌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를 대표하여 신한국 5개 지구 회장과 천원특별지구 천원궁 천원교회장(6명)은 봉헌자로 입장하여 ‘효정봉헌서’를 하늘부모님께 봉헌했다.

이어지는 ‘천심합심기도’ 시간은 분원장을 비롯한 수련원 직원들의 대표 통성보고로 이어졌다. 전체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찾아주신 효정봉헌서에 감사를 올리며, 하늘의 협조를 간구하는 천심합심공명기도를 올림으로써 성료됐다. ㄷ



고천감사문을 봉독하는 이기성 천심원장 내외



분원장을 비롯한 수련원 직원들의 천심합심공명기도

참부모님 생애업적 전시회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참부모’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하는 ‘천지인참부모 생애 업적 전시회’가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참부모>라는 주제 아래 <참아버님 휘호전: 향수>, <참부모님 추억의 사진전>으로 기획되어 천력 7월 15일부터 17일까지(양 8.12~14) 천정궁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참아버님 휘호전 <향수>

참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참아버님 휘호전: 향수>는 섭리역사의 중요한 목적과 긴박한 순간을 짚으시며 내려 주신 참아버님의 휘호를 모아 전시됐다. 참아버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휘호들을 돌아보며, 축복가정을 향한 참아버님의 사랑을 체휼하고 참아버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참부모님 추억의 사진전 <참된 인생의 길>

참부모님의 삶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사진들로 채워진 참부모님 추억의 사진전<참된 인생의 길>은 ‘하늘부모님의 사랑’, ‘참부부의 사랑’, ‘참가정의 사랑’, ‘참식구의 사랑’, ‘참만물의 사랑’등 5주제를 중심으로 사진을 엄선하여 전시됐다. 하늘부모님과 인류와 만물과 소통하시며 참된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참부모님의 삶 속 아름다운 일상을 체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생애업적 전시회는 공생·공영·공의 삶을 살아오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와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천일국 안착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걸어 나오신 참어머님의 승리의 발자취를 소개함으로써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식구들에게 깊은 심정과 사랑을 체휼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다. 





천일국 지도자 총회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천일국 지도자 총회가 천일국 10년 천력 7월 19일부터 20일까지(양 8.16~17) HJ가든홀에서 개최됐다.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 첫날 총회 일정은, 개회선언, 경배,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꽃다발 봉정, 보고기도, 훈독말씀, 개회사, 경배,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신한국, 신미국, 신일본, 신아프리카, 신유럽, 신중남미, 신아시아태평양 21개월 노정 결과보고 및 60개월 노정 전략 발표 및 섭리기관 전략보고가 펼쳐졌다.

각 대륙 및 섭리기관 보고

신한국

- 사회** 변중호 신한국 1지구 YSP회장
- 발표** 이기성 신한국 천의원장, 주진태 신경인국 대륙지구회장, 문연아 신한국 UPF의장, 김동연 신한국 YSP회장

신일본

- 발표**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

신미국

- 사회** 미일한 스티븐슨 YSP 부대륙회장
- 발표** 김기훈 신미국 천의원장, 용정식 신미국 1대륙회장, 김문식 신미국 2대륙회장, 마이클 젠킨스 신미국 UPF 의장, 미일한 스티븐슨 미국 YSP 부대륙회장

신아프리카

- 사회** 미카 카마라 신아프리카 YSP회장
- 발표** 바카리 카마라 신아프리카 천의원장, 카디마 문다디 신아프리카 대륙회장, 아다마 둠비아 아프리카 UPF 사무총장, 미카 카마라 신아프리카 YSP회장

신유럽

- 사회** 보그단 파머 신유럽 YSP 부대륙회장
- 발표** 오오츠카 가즈미 신유럽 천의원장, 마이클 발콤 신유럽 대륙 회장, 오오츠카 가즈미 신유럽 UPF 공동의장, 잭마리온 신유럽 UPF 공동의장, 보그단 파머 신유럽 YSP 부대륙회장

신중남미

- 사회** 우만호 신중미 YSP 부대륙회장 & 사무엘 리하레스 신남미 YSP 부대륙회장
- 발표** 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 김상석 신중미 대륙회장, 양창식 신중미 UPF 의장, 우만호 신중미 YSP 부대륙회장,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 신동모 신남미 UPF 의장, 사무엘 리하레스 신남미 YSP 부대륙회장

신아시아태평양

- 사회** 탐 김스루이 제1대륙 YSP 부대륙회장 & 로니 소두스타 신아시아태평양 제2대륙 YSP 회장
- 발표** 로버트 키틀 신아시아태평양 천의원장, 데미안 던클리 신아시아태평양 제1대륙 회장, 탐 김스루이 신아시아태평양 제1대륙 YSP 부대륙회장, 호리 마사이치 신아시아태평양 제2대륙 회장, 로니 소두스타 신아시아태평양 제2대륙 YSP 부대륙회장, 에크낫 다칼 신아시아태평양 UPF 의장

둘째 날 일정은 특별보고, 세계본부 전략보고, Vision 2027 승리를 위한 천일국 지도자 출정결의식, 억만세 삼창, 기념촬영,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섭리기관 전략보고

- 발표** 토마스 월시 UPF 세계의장, 마츠다 코지 YSP세계회장

특별보고

- 발표** (교관시스템) 송인영 세계본부 교회성장처장



(왼쪽 위부터) 개회사를 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말씀헌동을 하고 있는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신한국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문연아 UPF의장, 신한국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이기성 천의원장, 신일본 결과보고 및 전략발표를 하는 방상일 대륙회장, 신미국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김기훈 천의원장, 신미국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용정식 대륙회장, 신아프리카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바카리 카마라 천의원장, 신아프리카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아다마 둠비아 아프리카 UPF 사무총장, 신유럽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는 오오츠카 가즈미 천의원장, 신유럽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마이클 발콤 대륙회장, 신중미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양창식 천의원장, 신남미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김동우 대륙회장, 신남미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신동모 신남미 UPF 의장, 신아시아태평양1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로버트 키틀 천의원장, 신아시아태평양2 활동 및 전략발표를 하고 있는 호리 마사치 대륙회장, 신아시아태평양1,2 활동 및 전략발표 예크넷 다칼 UPF 의장, 섭리기관 전략보고를 하고 있는 토마스 월시 세계 UPF 회장, 섭리기관 전략보고를 하고 있는 마츠다코지 세계 YSP 회장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세계본부 전략보고를 통해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아주! 라고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아버님의 유언. 그 아버님의 성화를 목전에 두고 내가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천일국을 정착시키겠다는 참어머님. 양위분의 천일국 정착시키겠다는 순교의 심정, 끝까지 걸어가시겠다는 순교의 심정, 그 심정이 우리 통일가에 영원히 상속된다면 이 60개월의 노정이 꽃길 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아버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어머님과 그 노정을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된다고 믿는다. 거기에 우리 지도자님이 이 길을 걸어가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노정이지만 우리가 함께 전략 수립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2027 승리의 한날을 맞이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각 대륙 천일국 지도자들이 전체 발표에 대한 정리와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는 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축승회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축승회가 천일국 10년 7월 22일(양 8.19) HJ가든홀에서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륙별 천일국 지도자, 축복가정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자'라고 당부하셨다.

"귀한 말씀은 뭐겠어요? '천일국 안착, 환경 창조 완성, 승리의 한 날을 기필코 2027년 하늘부모님의 60주년을 맞는 날,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늘부모님의 축복이 영영세세토록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천일국의 의미가 무엇이나?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참부모로 하여 하늘부모님의 자녀들로서 지상에서 참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실제생활 그것을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기필코 보여주겠다고 하여 이 천원단지를 조성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일본부인회에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2세로서 부모에 대한 간증을 한 얘기를 들을 때에 남편이 성화하고 7남매를 다 대학을 보내고, 6남매의 축복을 완성시키고 이제 마지막 동생도 준비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임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지상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송영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타 슈지 가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두 가정에 예물을 주려고 해요. 그 여기에 도착했으면 나와요.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특별보고를 통해 '참어머님의 10년간의 섭리적 경륜'의 의미와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행사'의 종합 보고를 통해 각 행사의 승리 소식과 함께 섭리적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10년 전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부여안으시고 오히려 저희를 오히려 염려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이끌고, 등에 업고 지난 10년의 노정을 승리하시고 또 이번 어려움 가운데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대승리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정성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화합하고 하나되는 이 자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날 행사는 개회찬양, 개회선언, 특별보고, 영상상영, 찬양, 참부모님 입장, 경배, 꽃다발 봉정, 케이크 커팅, 예물봉정, 참부모님 말씀, 효정문화공연, 억만세 삼창,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승리의 약속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축승회
천일국 10년 천력 7월 22일 (2022. 8. 19) | HJ가든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은, 천일국 안착, 환경 창조 완성, 승리의 한 날을 기필코 맞이할 것입니다. 2027년 하늘부모님의 날 60주년에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늘부모님의 축복이 영영세세토록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천일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지상에서 참부모와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실제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기필코 보여주겠다고 하며 천원단지를 조성해 나왔습니다.

어제, 일본부인집회에서 아주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세가 부모에 대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성화한 후에 7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6남매의 축복을 완성시키고 마지막 동생까지도 축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이라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지상 생활에서 참부모님께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송영 드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하타 슈지 가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에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박수).



1-6 예물봉정(니제르, 천정궁 세계본부, 신일본, 신북미, 신아프리카, 유럽, 신중미, 신남미, 신아시아태평양12, 천원사, 효정국제과학재단, 효정문화원, 피스로드 재단)

7 예물하사
8 신한국 지도자들의 공연
9 억만세 삼창



